



▲ IMF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에서 의료후원금금을 늘려 따뜻한 정감을 느끼게 한다.

백혈병 어린이 후원금 수혜

기업은행 노조, 백혈병어린이 6명에 매월 10만원씩 지급

지난 1일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경기도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백혈병 어린이 6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기업은행의 백혈병 어린이 후원으로 이종환군 등 총 6명의 어린이가 앞으로 완치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후원금을 받게 된다.

기업은행은 지난 해부터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에서 치료중인 백혈병 어린이를 후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민간단

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식 후원하게 됐다.

지난 해 2명의 어린이를 후원한 기업은행은 올해부터 6명으로 수혜 인원을 늘렸으며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기업은행, 의료원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은 지난 90년 문화방송이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범국민적인 모금행사를

시작한 이후 활발히 전개됐으며 91년부터 96년까지 총 3천5백여 명의 어린이가 수혜받았다. 이후 매스컴을 통한 공개모금이 논란의 대상이 됨에 따라 후원금 총액이 감소되어 진료비 지원액과 대상범위가 축소되었다. 하지만 소규모 민간차원에서 지원사업은 계속 전개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에는 약 30여 명의 백혈병 어린이가 치료를 받고 있다. (김현중 기자)

의료원 일화

불만투성이 환자

외래진료 중인데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들린다.

병원장 부속실에서 온 전화인데 김모씨(남자 57세)가 병원장 면담을 원하면서 수술비 및 병원 입원비까지 환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김모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40-50여년 전부터 빈번한 감기 및 늑막염증세로 호흡곤란을 겪어왔다고 자기 자신을 설명했다.

그간 각혈, 호흡곤란 및 가슴통증 등으로 고생해 왔다고 한다. 막노동 등 잡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증세가 악화될 때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항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만을 받아왔다고 하며, 이리다보니 자연히 폐쇄적인 성격이 길러졌던 것 같다. 더욱이 이 점을 악용하려는 의도도 생긴 듯하다.

어쨌든 입원당시 흉부 X선검사 및 기타검사상 폐농흉이 심했고 폐기능도 상당히 나빴었다. 40여 년 이상이나 농흉이 진행된 상황에서 수술을 권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가 난감했지만 외과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수술을 집도하였다.

폐를 싸고있는 늑막과 흉벽 및 간장과의 유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기억에 남는 것은 다른 농흉이나 섬유흉환자와는 달리 지방조직의 침윤이 제법 많았으며 간장부위에 이웃한 흉막의 유착조직을 전부 제거하고 보니 무려 2백g 이상 나갈 정도로 두껍고 딱딱했다는 점이었다. 제거하고 난 늑막의 빈공간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위를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이것으로 인해 염증이나 호흡곤란 등이 지속된다면 2차로 흉곽성형술(공동의 늑골절제 후 그 위를 근육으로 충전하는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로 퇴원하였다.

문제는 환자가 퇴원한지 1년 6개월 후부터 시작되었다. 김씨가 흉부외과로 빈번히 찾아와 계속적인 호흡곤란, 소화불량 등을 핑계로 수술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본인의 주장과 달리 외전상 김씨는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폐기능도 거의 정상에 가까웠다. 약 1년여 동안 외과에서 서너차례 소란을 피우다가 급기야는 원장실까지 가서 입원비는 물론 수술비와 제반비용까지 환불하라고 항의했다. 그때마다 똑같은 설명을 몇번이고 되풀이 해서 김씨를 달래야만 했다.

이후 1년간은 소식이 없다가 얼마 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영세민택을 받아야겠다며 장애인단체를 찾아달라고 찾아왔다. 그러나 폐기능이 거의 회복되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일반인단체를 발부해 주고 돌려 보냈다.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장애인 등록이 안됐다고 전화로 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이분은 이런 식으로 주위사람 및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쉽게 쉽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활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다. 자신의 처지가 열악하다며 자꾸만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아마 김씨는 조만간 다시 전화를 하든지 방문하여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조규석(흉부외과 교수)

지역·의료원 소식

팔달산 성곽 산책로 정비
수원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팔달산 남치부터 서남 암문까지의 수원 화성의 총 138m구간이 정비된다.

난간 이설공사, 계단설치와 화강석 축조공사 등 오는 25일까지 완료되고 산책로가 정비되면 팔달산에서 팔달산 정상까지의 산책로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에서 민원서류 발급

수원시는 지난 1일부터 농협창구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농협에서 접수, 처리 및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호적 등·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 20종이다. 민원서류는 신청 후 4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은천노인복지회관 개관

지난 4월 1일 장안동 늘푸른 어린이 공원에서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취업알선 등 종합 복지시설 기능을 갖춘 '은천노인복지회관'이 개관했다.

이번 복지회관 개관은 최근 IMF 사태로 소일거리를 잃고 공원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노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인 복지회관은 경로식당과 공동작업장, 취업알선센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원시, '시민 신명 한마당'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수원시가 '시민 신명 한마당'을 마련한다. 시민 신명 한마당에는 불필요해진 각종 생활용품의 재활용을 위한 일출시장 및 시민을 위한 신명음악회가 개최된다.

제 11회 호의 성곽순례행사

오는 12일 수원 화성에서 개최, 약 4km 코스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하고 청소년들에게 호의 정신과 역사교육을 심어주기 위한 '제 11회 호의 성곽순례행사'가 오는 12일 화성 일원에서 개최된다.

성곽순례 구간은 신흥초등학교에서 팔달문을 거쳐 장안문, 화홍문, 장흥문에서 이어 봉돈까지의 약 4km 코스이며 순례 지역별로 관악대, 퍼레이드, 고전무용 및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개최식 행사에서는 효행상, 덕행상, 선행상 등 3개상을 각 2명씩 6명에게 시상하며, 순례행사 후에는 성곽순례 체험 강사들을 공모해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마지막 행사에서는 70

여명의 봉수꾼과 취태대가 출연하여 '봉수기화'를 재연한다.

소비자 보호센터운영

소비자와 업주간 정당한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센터가 운영된다.

10개의 행정기관에서 소비자 보호를 맡게 되며 문화공보실에서 도서, 음반, 영상부분 상담을,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 및 레저·휴양·용역업, 가정복지과에서는 음식점, 장례식장 등의 부대시설 이용을, 교통지도과에서는 자동차 결인과 단속에 관련한 사항들을 상담 관리하게 된다.

한편, 동대문구청은 98년 한해동

안 불량식품 등 식품위생분야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한다.

무허가 식품 판매를 고발하는 구민에게는 10만원, 음란 영화 상영을 고발하는 구민에게는 10만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위반사례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사진, 비디오 등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확보해 동대문구청 위생과에(920-4360) 연락하면 된다.

구청에서 여권발급 가능

지난 4월 1일부터 동대문구청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서울시장의 여권발급 신청은 종로, 서초, 노원, 강남, 영등포 등 일부 자치구에서만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 동대문구청도 이를 취급함에 따라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청에 직접 오지 않아도 여권발급에 대한 궁금증과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발급 자동전화제도(733-2114)'도 실시하고 있다.

구직자 쉼터 개소

오는 7일 경제살리기 수원시민 협의회와 구직자 쉼터가 문을 연다.



▲구청장을 비롯 5백여명의 구민이 참석하여 동대문구 민생현안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지난 3월 27일, 동대문구민회관에서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재건축 조합장과 구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자치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대문 구민의 삶의 질 향상방안'과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주

제로 구의회 의원 및 구간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의 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에는 실직자 대책방안을 위해 '자립능력개발센터'를 신설할 것과 테마공원 조성 등 거주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신상품 개발에 주력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마을 지킴이

서천리 이장 오광환씨

“학교 주변을 고향처럼 생각하길...”

“학생여러분, 여러분은 지성인입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지성인에 걸맞게 행동해 주십시오.” 새벽 5시면 서천리 이장 오광환(보통건설 대표이사, 43) 집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4년째 이장직을 맡고 있는 오씨는 ‘늦은 시간 수 취한 학생들의 고성방가와 쓰레기가 골칫거리’라며 ‘학생들이 각성하도록 아침 방송을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학생들이 고성방가를 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학생을 때문에

다수의 그렇지 않은 학생들마저 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고 한다. 하숙, 자취하고 있는 약 1천 5백명의 학생들에게 ‘부모와 함께 사는 내 고향, 집처럼 생각하고 지역을 아끼려고, 어려운 일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 등은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자’며 고향같이 생각하고 지낼 것을 당부하는 오씨.

한편 자취, 하숙하는 학생들이 동네 주민들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한다면 이장인 자신에게 연락해 달라고 한다. 그

는 ‘학생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견을 조정할 것이다’라며 학생과 지역 주민과의 괴리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서천리는 준농림 지역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여가선용의 공간이 없다. 이에 대해 그는 ‘쾌적한 문화분위기 및 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며 용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환 이장은 학교와 지역간의 관계에 대해서 ‘지역은 지역이 가



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해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학교는 지역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학교로 인해 주민들이 입는 피해들의 대해서 공감해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7일 마재결연 이후 지역과 학교간의 마찰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는 ‘이제 지역과 학교는 서로 발전을 모색, 공존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한다. (지은정 기자)

국제교류센터 인터넷 공고 시작

인터넷공고

<http://www.kyunghee.ac.kr>
http://www.kyunghee.ac.kr/e_home



경희대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에 자주 들르세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국제교류센터

모의 TOEIC 실시

- 서울캠퍼스
 - 일시: 1998. 4.9(목) 18:00~20:30
 - 장소: 법과대학 301강의실(연필 또는 컴퓨터를 써인펜 지참)
 - 접수기간: 1998. 3.31(화)~4.9(목)12:00까지
 - 접수장소: 학생처내 1층 취업정보실
 - 응시료: 1천원(학교부담 1천원, 개인부담 1천원)
- 수원캠퍼스
 - 일시: 1998. 4.9(목), 10(금) 오후 5시
 - 장소: 외대 제2강의실(추후 공고)
 - 접수기간: 1998년 3.23 ~ (현재 접수중) 09:00~17:00
 - 접수장소: 외대 로비와 A V실(322호)
 - 응시료: 4천원(평생교육원 수강생은 무료)

서울캠퍼스 취업정보실
수원캠퍼스 평생교육원

취업준비를 위한 경제학원론 특강

- 강사: 박용안 교수
- 개강: 1998. 4.9(목) 19:00
- 대상: 본교 재학생 전체(공무원 7급, 고시(사시, 행시, 외시), 기업체 입사시험 준비생)
- 강의내용: 경제학원론(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중심의 강의
- 강의기간 및 시간: 총 8주(40시간)
 - 목요일 19:00 ~ 21:00(2시간)
 - 토요일 14:00 ~ 17:00(3시간)
- 강의실: 문리대 402호

- 접수방법
 - 문의 및 접수처: 취업정보실 961-0167 ~ 8
 - 수강료: 5천원
 - 접수기간: 1998. 4.6(월)부터

서울캠퍼스
학생처·취업정보실

'98 1학기 C.R.S. 인증시험 시행공고

1. 응시분야(시험내용)
 - 가. 영어분야: 듣기, 쓰기 및 읽기위주의 선택형 문장
 - 나. 전산분야: 전산학이론 및 컴퓨터응용실습
2. 응시자격: '98학년도 1학기 C.R.S. 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합당하여야 합니다.
 - 가. 1997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
 - 단, 199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라도 대학, 재입학, 일반(학사) 편입학 등의 사유로 2001년 2월 1일 이후 졸업하는 경우 C.R.S.를 적용한다.
 - 나. '98학년도 1학기 등록을 필하고 시험일 현재 재학중인 자
 - 다. 위 '가'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도 위 '나'항의 요건에 합당하면 응시를 할 수 있으며 합격할 경우 성적부에 C.R.S. 합격(P) 표기를 합니다.
3. 이수방법: 아래 각 호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인정 받아야 졸업이 가능합니다.(단, 입시특기자는 제외함)
 - 가. 학교가 지정한 C.R.S. 지정과목(외국어분야 3학점 이상, 전산분야 3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B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 나.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학교가 요구하는 성적을 취득하는 경우
 - 다. 학교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4. 시험일정
 - 가. 원서배부 및 접수기간: 1998. 4. 20(월) ~ 4. 24(금)
 - 나. 원서배부 및 접수장소: 소속 단과대학 교무실
 - 다.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양식)1부
 - 라. 시험일시: 1998. 5. 9(토)
 - 영어분야: 10:00~11:40(100분간)
 - 전산분야: 13:00~14:40(100분간)
5. 시험장소: 1998. 5. 4(월) 대학주부, 단과대학 교무실 및 학부(과) 사무실에 공고합니다.

수원캠퍼스 교무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 안내

1. 설립년월일: 1998년 1월 1일 (정보통신부의 '97년도 대학내 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일환)
2. 설립목적
 - 가. 정보통신 관련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사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
 - 나. 기술 및 경영지도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3. 대상
 - 가.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기있는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회사 (창업 후 2년 미만)
4. 특전
 - 가. 사무실 제공 8평규모 (5개 창업실)
 - 나. 정보통신용 텔레마케팅 시스템 활용
 - 다. 전화, PC 등 OA 기기 이용

모집안내

입주처	경희대학교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모집규모	5개 창업실 (8평 내외/실)
신청기간	'98. 3. 17 ~ '98. 4. 10
입주기간	6개월 ~ 2년 이내
제출서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 1부 (E-mail address 포함)
심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초기창업회사 우선 입주
제출처 및 문의처	김영수 교수 ☎: 0331-201-2592 FAX: 0331-203-7422 조장목 조교 ☎: 0331-201-2650 FAX: 0331-202-1613

* 지원서류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조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E-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